

제2 심석희 막는다… 여야 선수보호법 발의

폭행·성폭행 형 확정시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징계 심의 담당위→스포츠 윤리센터로 별도 독립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체육계 폭행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제2의 심석희'를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문제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회견에서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

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정밀하게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다. 운동선수보호법은 그 첫 번째 노력"이라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 문제위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민 의원은 "젊은빙상인연대에서 심선수 이외에 성폭행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얘기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TF를 즉각 가동하고 빙상적폐세력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감감하게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감 있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심석희 선수의 피해는)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총사퇴해야 할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판과 구조를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5G 장비 생산 현장을 방문, 이동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 완화 통해 경제 활성화”

민주당 - 경제 4단체장 신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경제 4단체장들과 신년간담회를 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잠재성장력 한계를 구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며 "최근 경제인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하는 등 (희비가) 교차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여당의 역할을 기대한 다면서 특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상의에선 이날 8개 과제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빠르게 바꿔 시장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엔 입법부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뿐 아니라 경제계·이해당사자들도 위원회에 참여해 국회서 신속하게 입법을 하거나 정부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비공개 회의 이후 "(민주당이) 기업들에게 좀 더 기를 불어넣어줘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하는데, 여당도 이 점에 있어 힘을 많이 보태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사기꾼 지만원, 5·18 진상조사위원 안돼”

바른미래 하태경…추천 주장한 한국당 김진태 사과 요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5·18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퍼뜨리고 있는 지만원씨를 '사기꾼'으로 자칭하며 자유한국당이 지씨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씨를 한국당 조사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진태 의원이 '지씨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잘못이 아닌 5·18 전문가라고 해서 5·18 진상조사위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씨는 잘못 정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라며 "지씨가 발표한 '광수' 중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전부 다 날조다"라고 비판했다. '광수'는 지씨가 광주에 잠입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특수부대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하 의원은 이어 "이 분들 중에는 80년 당시 초등학교 나이였던 분들도 있고 10살이 채 안 됐던 분도 있다"면서 "그분들이 특수부대로 광주에 잠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이 지씨"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람을 무슨 5·18 전문가라고 추켜세워 진상조사위원으로 꼭 넣으라고 하는 건지, 김진태 의원 정말 큰 실수 하셨다"면서 "지 씨가 탈북광수라고 명명한 50여명 탈북자들에게도 반드시 사과당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만원씨 5·18 북한특수부대 개입 주장 관련 피해 탈북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자리에 선 '광수'로 지목된 탈북자들은 지씨를 "정신나간 사람", "약간 정신이 나간 분"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앞서 지씨는 1980년 광주에 납파된 북한 특수공작원을 안면인식 특수기술로 찾는다며 인터넷에 이른바 '광수'를 연속공개한 바 있다. 그 중에는 요격수용소에 수용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지난 2004년 '수용소의 노래'로 펴내 유명해진 강철환씨 등이 있다. 심지어 1980년 당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제71광수),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던 조명철 전 의원(제198광수), 강성산 북한 전 국무원 총리의 사위 강명도 경계대 교수, 김정일의 처조카로 북에 의해 피살된 리일남(이한영, 제210광수) 씨 등도 포함되어 물의를 빚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당 사찰·조작·위선정권 진상규명 연석회의에서 지씨를 언급하며 "그 분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잘못이 아니다. 한국당 똥의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꼭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는 의원석에 지씨의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책자가 놓여 있어 당 관계자들이 회수하는 소동이 있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오월 단체들, 14일 나경원 면담 추진

조사위원 조속 추천 촉구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5월 단체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조속한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요구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오는 14일 국회 의사당에서 나 원내대표와 면담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5월 단체는 나 원내대표에게 하루빨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지만원씨 등 5·18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언행을 한 사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인물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이번이 5·18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득하고 조사업무를 열정적

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5월 단체들의 면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면담을 요청해오긴 했지만 아직 면담에 응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나 원내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은 계엄군 발포 체계, 행방불명자 압매장 장소, 1980년 5월 당시 군이 행한 반인권적 행위 등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자유한국당 똥인 3명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본 부지토는 고적역 이매를 즐기 위해 제지하였으며, 설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코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